



리코아메리카, 연속지 잉크젯 플랫폼 발표 디지털 시장으로 확대 겨냥 리코 프로 VC60000 공개

리코아메리카퍼레이션은 지난 9월 24일 최신 연속지 플랫폼을 탑재한 리코 프로 VC60000을 발표했다. 리코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결합된 이 플랫폼은 상업용 인쇄기기로서 오프셋 인쇄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과 선명한 인쇄품질 및 다양한 미디어에 사용이 가능한 유연성과 함께 고성능을 요구하는 워크플로에 포커스를 맞췄다.

자료제공 | (주)리코코리아

시간당 10만 개 이상의 레터사이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이나 이미 디지털 프린터를 사용하지만 운영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디지털 컬러로 기능이 풍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4그래픽엑스포에서 소개된 많은 리코 제품 중의 하나다.

2014 EM 어워드 수상, 2015년 초 출시

2014 EM 어워드를 수상한 리코 프로 VC60000은 2015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25년간 핵심 잉크젯 기술을 개발한 경험에서 비롯된 Drop-on-demand 프린트헤드와 고밀도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한다. 프린트헤드는 인치당 1200×1200 도트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또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드롭 테크놀

로지를 통해 고객들은 오프셋에 가까운 품질을 선사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옵션인 언더코트 유닛으로 다양한 오프셋 코팅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오프셋 인쇄기에 가까운 품질을 재현할 수 있다. 옵션인 내부의 프로텍터 코팅 유닛으로 작업물을 스크래치와 마찰로부터 보호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IT스트레티지사의 마르코 보어 부사장은 “리코 프로 VC60000은 오프셋 프린트 업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인쇄업계에 중요한 획을 그을 것이다. 리코 프로 VC60000의 인쇄 품질은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수직성이 낮았던 오프셋 인쇄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옮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업인쇄와 인플랜트, DMA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잉크젯 프린터 품질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리코 프로 VC60000은 개방형 표준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PDF와 PDF/VT, 향상된 컬러 매니지먼트 및 JDF와 함께 AFP를 제공하는 리코의 최첨단 DFE(Digital Front End)를 사용한다. 고성능의 DFE는 복잡한 데이터 기반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 됐는데, 리코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가변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향상된 워크플로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 리코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파트너사와 전략적으로 제휴된 제품들은 리코 프로 VC60000을 더욱 완벽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톨 세트와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